

조경수목 산책 (VⅢ)

—목련—



임 경 빈 / 아카시나무연구회장

내가 목련 종류의 나무를 본 것은 나이 서른이 훨씬 넘어서였다. 내가 자라난 산골 동네에는 물론 국민학교 (보통학교라 했다)가 있었던 면사무소 소재 지마을에도 없었으며 군청소재지에도 없었다.

중학교에 다니던 대구시내에서도 목련종류의 나무를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당시 필자의 살핌이 부족해서 온 탓일지는 모르나 하여튼 나는 그 나무를 본 적이 없다. 다니던 대구농림 학교에서 좁은 면적이긴 했으나 수목원이 있었고 교재용으로 각종의 나무가 모아지고 있었으나 목련이 심어져 있었다고는 기억되지 않는다. 이처럼 당시는 목련이란 꽃나무가 무척 희귀한 존재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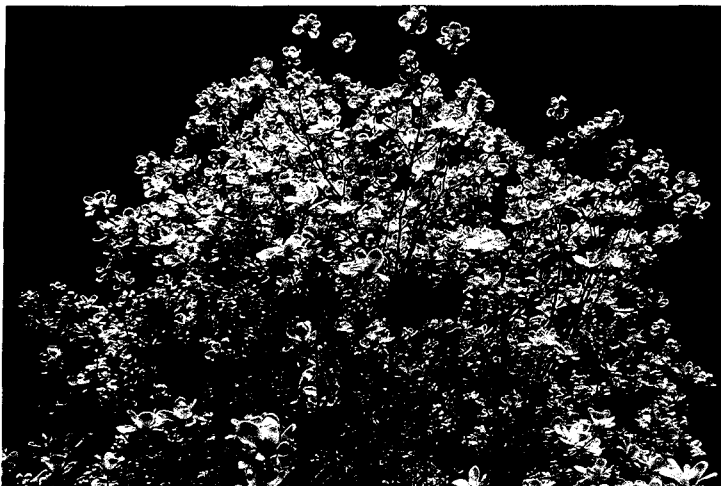
▲목련의 한품종, 이리에서. 1992. 4. 9.

꽃이 아름답고 열매로 묘목을 키우기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왜 이 나무가 널리 심어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절간에 심어진 자목련은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유심히 바라본 적도 없고 설명을 따로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면내에 있는 용문

사라는 절간에는 오래된 자목련이 자라고 있었다. 목련류의 나무가 나의 주변에 깔그리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해도 그때 특히 백목련은 드물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울타리안에 목련 한그루 심어둔다는 것은 분에 맞지 않는 치장이었기 때문인가. 목련묘목을 키울



▲백목련의 개화, 서울 송추가는곳, 1983. 4. 10.

털발이 있으면 다른 먹을 거리 농작물이라도 심는 것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인가.

그 이유를 캐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요컨대 목련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생각컨대 1950년대에 후반쯤부터 목련의 증식이 거의 일반화되고 지금은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목련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꽃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수준에 올라섰다는 말인가. 이 나무의 꽃을 흔하게 볼 수 있게된 것은 좋은 일이다.

1. 목련속(屬)의 나무들

목련(木蓮)류에는 종류가 많다. 목련속(木蓮屬, Magnolia)은 목련과(Magnoliaceae)에 소속된다. 목련과에 속하는 다른 속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다음 방식이 그 하나이다.

1. 목련속 Magnolia
꽃은 가지 끝에 달리고 자웅양성(雌雄兩性)이다.

2. 초령목속(招靈木屬)
Michelia

꽃은 잎겨드랑에 달리고 역시 양성화(兩性花)이다.

3. 오미자속(五味子屬)

Schizandra 또는 Schisandra
낙엽성이고 열매가 대궁에 주렁주렁 달린다. 덩굴식물이다.

4. 남오미자속 Kadsura

상록성이고 열매가 모여서 둥근 다발처럼 보인다. 덩굴식물이다. 이러한 분류방식이 있는가하면 오미자와 남오미자는 덩굴성 식물이고 모습이 목련속의 것과 크게 다르므로 오미자과(Schisandraceae)로 독립시키고 목련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눈 것도 있다.

1. 종자는 붉은 핵과(核果)모양이다. 앞에는 거치가 없고 갈라지지도 않는다.

(1) 꽃은 엽맥(葉脈)에 달린다.

초령목속 Michelia

(2) 꽃은 가지의 끝에 달린다.

목련속 Magnolia

2. 잎은 얇게 갈라지고 열매에 날개가 있다.

백합나무속 Liriodendron

이곳에서는 목련속의 나무와 초령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식재되고 있는 목련속의 수종에는 다음이 있다.

1. 백목련(白木蓮 Magnolia
denudata

영명 : Yulan.



▲백목련, 이리에서, 1989. 4. 15.

낙엽성교목이고 꽃잎은 9장이고 흰색이며 잎이 피기전 이른 봄에 핀다. 중국원산으로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것이다. 아름다운 꽃 나무이다.

2. 자목련(紫木蓮) M. liliflora
영명 : Lily Magnolia

낙엽성소교목이고 꽃잎은 6장



▲자목련, 진주에서. 1987. 4. 18

이며 자홍색(紫紅色)의 꽃이 잎이 피기 전에 핀다. 이것도 중국원산이다. 나무높이가 보통 3~4m쯤 된다.

백목련과 자목련사이에 잡종목련이 만들어 졌고 그 꽃색은 다양



▲자목련, 어느절간에서. 1988. 5. 8

한 변이를 보인다. 그 학명이 *M. x soulangeana*인데 19세기초 프랑스 파리 가까운 프로몽에서 Soulange-Bodin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안에도 많은수의 품종이 선발되어 있다.

3. 일본목련 *M. obovata*

낙엽성교목으로 가지가 영성하게 나고 잎이 크고 잎 뒤는 약간 흰 빛을 띤다. 5월경에 잎이 핀 뒤

향기나는 꽃이 달린다. 꽃잎은 9장이다. 줄기가 곧게 높게 자란다. 심근성(深根性)이고, 일본원산이다. 우리나라에 흔히 심어지고 더러 후박(厚朴) 나무란 명칭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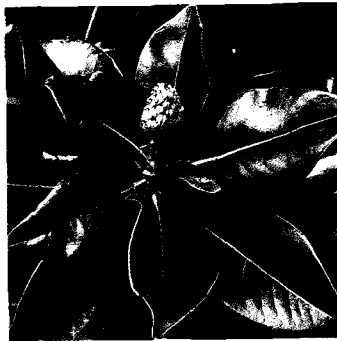
4. 태산목(泰山木) *M. grandiflora*

영명 : Bull Bay,

Laurel Magnolia,

Southern Magnolia.

상록성교목이고 미국원산인데



▲태산목, 미국 애틀란타 식물원. 1987. 8. 6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경남등 따뜻한 지방에 재식될 수 있다. 줄기가 곧게 높게 자라고 잎이 혁질(革質)이며 길이가 20cm에 이른다. 여름철에 흰꽃이 달리고 꽃잎은 6장 또는 9장이다. 잎표면은 광택성의 진한 녹색이고 잎뒤는 갈색의 털이 밀생해 있다. 꽃향기가 강하다.

북쪽 찬바람이 가리우는 큰 건물의 남쪽에 심는다면 더 북쪽지방까지 심을 수도 있다. 수성이 무척 강건한 편이다.

위에 든 4개수종은 모두 도입종이다. 다음 우리나라 재래의 자생종을 들어 본다.

5. 목련(辛夷) *M. kobus*

일본명 : Kobushi

낙엽성교목이고 흰꽃이 초봄 잎이 피기전에 피며 향기가 강하



▲목련(우리나라 자생종), 수원 호매실에서. 1988. 10. 20

다. 어린가지가 녹색이고 꺾으면 향기가 난다. 꽃색은 희고 꽃잎은 6장이다. 무척 야생적인 꽃나무로 야취(野趣)가 물씬 풍기는 고급 조경수이다. 우리나라 산중에 나고 제주도에도 있으며 일본에도 분포한다. 열매맛이 시어서 신이란 이름을 얻었다.

일본명은 고부시인데 이것은 주먹이란 뜻으로 그 열매의 모임인 과총(果叢)이 흡사 주먹처럼 보여서 얻어진 이름이라 한다. 양묘도 쉽게 되고 이식도 잘되며 수성이 강건한 편이다.

6. 함박꽃나무(天女花) *M. parviflora*

일본명 : Ooyama-rengé

(大山蓮花)

영명 : Ooyama Magnolia

낙엽성의 소고목으로 흰꽃이 여름에 회계피고 꽃잎은 6개 또는 9개이다. 꽃대궁의 길이가 3~7cm에 이르고 꽃이 아래로 향하면서 피는 특성이 있다. 꽃받침은 3개이고 분홍색을 띤다. 우리나라 산중 낮은 곳에 나는데 그 수가 적고 집단을 만들어 자라는 일은 거의 없다. 화량(花量)이 적은 편이고 무척 야성적인 맛을 던져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래종으로써의 목련에는 함박꽃나무와 신이(辛夷)로 말하는 목련이 있는 셈이다.

목련속 수목의 종합적 특성으로써는 꽃이 크고 양성화이며 대체로 향기가 강하고 꽃받침은 3장인데 종종 꽃잎처럼 되기도 한다. 꽃잎수는 6~12개이고 다수의 수술이 화상(花床)에 나선상으로 붙고 열매가 성숙하면 타원형의 것이 엉켜붙은 집합과(集合果)를 만들고 목질(木質)로 변하며 이것이 갈라지면 그 안에 붉은 종자가 나타나고 가느다란 명주실같은 끈에 달려 늘어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다가 끝내는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종사(種絲)인데 목련속의 수목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모습이다.

약 35종이 북미주, 동아세아지방 그리고 히말라야까지 분포하고 있다. 화석으로써는 유럽과 그린란드까지도 나타나고 있으며 백아기(白亞紀 또는 백악기)와 제3기(第3紀)에 많이 나오고 있다.

백아기라 하면 약 1억 4천만년에 시작된 시대로 피자식물이 그 번성의 첫발을 내디딜 때였다. 따라서 목련속은 고대식물이다. 즉 원시적피자식물(原始的 被子植物)이다. 원시적피자식물의 꽃은 많은 심피(心皮)로 되어 있다.

즉 꽃잎, 수술, 암술등의 많은 화기(花器)의 구성요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약간 튀어나온 화상(花床)에 나선상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점은 앞에서 언급된 일이 있다.

이러한 소위 다심피(多心皮)의 특성은 소나무, 가문비나무, 이깔나무, 히말라야시더등 나자식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성이지만 이러한 특성을 지닌 피자식물의 보기로써 목련류는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자식물(일반적으로 침엽수로 말한다)은 활엽수종(피자식물)보다 더 고대에 나타난 식물들이다. 따라서 침엽수에 닮은 활엽수는 살아있는 화석이 아닐 수 없다.

목련류 수목의 꽃가루의 구조는 침엽수종의 꽃가루에 닮아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목련류 수종의 화석은 피자식물(활엽수종)의 역사의 시작에 즈음해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의 환경에 알맞게 자라던 목련이 길고긴 지질의 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앞으로 어느정도 더 그들의 삶이 계속될 지 두고 볼만하다.

긴시간을 살아 왔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생물이 지닌 운명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예외의 존재로 목련들은 살아 갈 것인가.

2 목란(木蘭)

현재 우리주변에서 가장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백목련과 우리나라산의 목련(辛夷)인데 그중에서도 중국산의 백목련이 앞서고 있는 느낌이다. 백목련의 형태는 이미 설명했다.

백목련을 중국 본고장에서는 옥란(玉蘭), 목란(木蘭), 목련(木蓮), 목필(木筆)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중 목란이란 명칭에 필자의 흥미가 쏠린다. 군방보(群芳譜)라는 중국고전에 보면 「꽃잎이 9개이고 그 향기가 난초의 향에 닮아 있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있다.

연(蓮)이라하는 글자가 들어가게 된 것은 그 꽃모양이 흡사 연꽃같아서일게다. 그래서 목란이라면 목본성의 난초라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목련꽃의 향기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즉 「일반적으로 마그놀리아(목련)의 꽃은 향기가 강하므로 침실에 한송이의 꽃이라도 이것을 두게 되면 그 방의 사람은 그날 밤으로 죽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안들은 태산목의 꽃이 필 때에는 그 그늘 아래서는 지는 일이 없다. 인도에

서는 이 꽃속에 죽은 아이의 혼백이 숨어 있다고 전한다. 라는 기사이다. 만일 이러한 말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태산목의 강한 향기에 계속 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로 된다.

필자가 중학교 (지금의 고등학교 시절)에 다닐때 중국 여배우로써 이향란(李香蘭)이란 여성이 있었고 대단한 미인이었으며 인기 절정에 있었다. 이 이향란이가 목란종군(木蘭從軍)이란 영화의 여주인공이 되어서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영화의 인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 그 영화의 줄거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는 않다.

인상을 깊게한것은 목란이라는 예명을 가지고 등장한 그 명칭에 있었다. 젊은시절에는 이러한 매력적인 이름 하나가 우리를 빨아당긴다. 당시 중국(支那라 했다)은 일본과 사이가 좋지 못할 때라 여자가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서 싸움터로 용감하게 나가는 기상을 영화로 만들었을만 하다.

그런데 중국 남북조(南北朝)시대의 가요에 목란시가 있고 그 작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해 본다.

창가에서 목란이 베틀에 앉았다.

베틀소리는 어디로 가고 긴 한숨소리 뿐이로구나



▲ 백목련, 서울교외. 1983. 4. 10.

목란에게 묻노니
왜 너의 한숨인가?
목란의 대답이
어제밤 징병장부에
아버지이름 또렷했다.
아버지에 아들없고
목란에게 오빠없다.
원컨데 말과 말안장과
창을 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겠노라

목란은 병마를 타고 해질 무렵 황하 변두리에서 잠을 잘때 목란을 부르는 목선 아버지의 절규는 들을 수 없었다.

만리부용기(萬里赴戎機)
관산도약비(關山度若飛)
삭기전금탁(朔氣傳金柝)
한광조철의(寒光照鐵衣)
장군백전사(將軍百戰死)
장사십년귀(壯士十年歸)

목란의 전투부대(戎機)는 만리를 달려 날아가듯이 요새(關山)을 넘어갔다. 찬바람(朔氣)은 싸움터의 팽과리소리를 전했으며 찬빛은 갑옷(鐵衣)을 비추었다. 장군은 백번싸움에서 전사했고 장사(壯士, 즉 젊은 목란을 말한다)는 십년종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목란은 상금과 상패를 원하지 않고 천리마(天里馬)를 타고 하루 빨리 고향으로 갈 것을 원했다.

집에 다달은 목란은 군복을 벗고 거울앞에서 연지를 찌고 분칠을 했다. 함께 종군한 전사들은 이때 비로소 목란이 여랑(女郎 아가씨)임을 알게 되었다.

이상이 중국옛날 가요에 나온 목란종군의 줄거리이다. 아름다운 백련꽃의 용감한 전투행적을 짐작할 수 있다. 꽃이라해서 그것이 연약한 것만은 아니다.

목란(木蘭)이 반드시 백목련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목련은 동양종에 있어서 대표적인 목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희고 또 흰 색깔이 탄생한 원초의 생명에 첫모금의 생명수로 되는 젖빛갈보다 더 윤기가 도는 그 색깔이 고결(高潔), 청아(清雅), 한적(閑寂)과 같은 뜻을 담고 있기에 삶의 뜻을 파고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흠모라는 상징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다음 굴원(屈原)의 시의 일부를 뽑아본다.

울여약장불급혜
(汨余若將不及兮)
공년세지불오여
(恐年歲之不吾與)
조건비지목란혜
(朝搴阰之木蘭兮)
석람중주지숙망
(夕攬中洲之宿莽)

세월은 물살처럼 빨리도
흐른다(汨)
내가 따라갈 수 없을(不及兮)
정도로
무섭구나(恐) 세월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음을(不吾與)
아침에는 산언덕(阰)에서목련을
따고(搴)
저녁에는 중주(中洲, 물가)에서
향기나는 숙망(풀이름)을 꺾노
라.

굴원은 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러나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에 인생의
허무를 맡겨보는 품격높은 인생
관을 토로하고 있다. 이태백도 하
늘과 땅이라는 공간은 못생명들
이 잠시 머물었다가 떠나고 마는
시간이 지휘하는 무대라고 했다.
무대위의 연기자가 두번 그곳에
설 수 없는 것이 슬프지 않을 수
없다.

3 초령목이야기

초령목은 거대한 몸집으로 자
라는 상록성의 활엽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전남 신안

군 흑산도 진리 낮은 산언덕 위에
한그루 있었으나 몇해 전에 죽고
말았다. 줄기의 가슴높이에서의
지름이 근 1m에 이르는 거목이었
고 수령은 알 수 없으나 수백년은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 본토에는 한그루도 없
고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
다는데 항상 수수께끼를 던져 주
었다.

이 나무는 일본에는 흔하다. 즉
일본 혼슈중부이남 류우큐섬에
이르는 따뜻한 곳에 난다. 그리고
보면 흑산도의 초령목은 일본사
람들이 갔다 심은 것이라고 짐작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
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나무의 나
이로 짐작할 때 일본사람들의 행
위로써는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
니냐하는 의문도 배제할 수 없었
다. 그래서 흑산도의 초령목의 유
래는 미궁에 빠진채 있었고 누구
라도 뚜렷한 근거를 낼 수 없었
다.

잎의 길이는 6~10cm쯤되고 잎
자루도 긴 편이다. 잎은 혁질이고
표면은 광택이 있는 진한 녹색이
고 잎뒤는 다소 청백색을 띠우고
털은 없다. 잎 표면으로 측맥을
알아보기는 약간 힘드나 잎뒤로
써는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잎자
루는 표면쪽에 있어서 움푹 들어
가서 홈처럼 되고 연한 짧은 털이
밀생해서 갈색으로 보인다.

초봄에 꽃이 피고 꽃의 지름은
2~3cm쯤 되고 향기가 강하다. 꽃
색은 희지만 아래쪽은 홍자색(紅

紫色)을 띠운다. 열매가 성숙하면
그 안에서 붉은 종자가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이 나무를 신사(神
社)나 불각(佛閣)경내에 잘 심는
다. 신의 혼령을 불러낼 때 이 나
무 가지를 제단위에 장식했다. 말
하자면 신의 령과 대화를 나누자
면 먼저 이 나무 가지를 바쳐서
초대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
었다. 신은 이 나무가지의 공물
(供物)을 볼 때 기분 좋게 그곳으
로 가서 좌정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이나무
의 이름을 초령목(招靈木)으로 했
고 초령이란 신령을 불러모신다
는 뜻이다.

우리도 그대로 이 명칭 초령목
을 쓰고 있다. 일본말로는 초령을
「오가다마」로 발음한다. 그래서「
오가다마노끼」가 그들의 명칭이
다. 일본에서는 개인정원에는 이

▼고사한 초령목, 흑산도, 1994. 12
28



나무를 심는 것을 꺼린다.

신이 이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로써는 이 나무가 높게 솟아나는 거목이고 보면 다른 나무를 압도해서 가장 잘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고

둘째는 깨끗한 나무라는 점이다. 신들은 추한 곳을 싫어 한다. 더러운 칙간의 귀신도 있다하나 그것은 무서운 존재일 수는 있어도 존경받을 신은 못된다. 우리가 초대하는 거룩한 신은 초령목쭝을 택하게 된다.

셋째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강하다는 점이다. 신들은 좋은 향기를 좋아한다. 초령목은 꽃뿐만 아니라 껍질에서도 잎에서도 향기가 난다. 그래서 이나무를 대사향(大師香)으로도 말한다.

내가 흑산도의 초령목을 처음 본 것은 1982년 7월 29일이었다. 이때 소위 다도해지역을 답사했고 당시의 기행문이 비교적 상세하게 『국립공원』이란 계간지에 1983년초 2회에 걸쳐서 게재된바 있다. 그중 초령목에 관련된 부분을 이곳에 뽑아본다.

우리는 흑산도 진리(鎭里)의 옛 산길을 걸어서 이곳에 있는 신기한 나무를 보기로 했다. 낮은 산 언덕에 서낭당이 있다. 서낭당 주변에는 소나무와 해송의 거목이 있다. 이 서낭당 가까운 곳에 초령목이 있다. 높이 20m, 가슴높이 줄기 직경 86cm라는 팻말이 서 있다. 면장어른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파종

하여도 묘목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 고립목인 관계로 교배할 상대편의 나무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이나무의 학명은 미첼리아 콤프레사(Michelia compressa)이다. 초령목은 목련과에 소속되는 초령목속의 나무인데 꽃과 열매는 목련속 나무들과 흡사하나 크게 다른점은 꽃의 화탁(花托 또는 花床으로도 말한다)이 길게되고 그 화탁 아랫부분에는 수술이 둘러붙고 윗쪽에는 암술(心皮라고 말하는)이 많이 붙어 있으며 수술 부착부분과 암술부착부분 사이가 서로 길게 떨어져서 대궁으로 되



▲백목련, 화탁(花托)위의 수술, 이리에서 1982. 4. 15.

고 두부분이 격리되어 있다는데 있다. 목련속의 꽃은 수술들의 부착부와 암술들의 부착부가 이어지고 격리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의 기행문에 있어서 초령목에 대한 기록은 무척 생물학적인 느낌을 준다.

초령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는 1994년 12월 27일 서울을 떠나 흑산도로 향했다. 새벽에 영등포에서 목포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는데 좌석은 편했다. 차창밖으로 나타나는 풍물도 좋았으나 잠을 청했다. 목포에서 흑산도행 선착장으로 가는데 서둘렀다.

여유있는 쾌속정이었으나 뜻밖에 파도가 높았다. 흑산도 예리항에 도착한 뒤 면사무소로 갔더니 우리를 출영 나온 자동차가 길이어긋나서 잘못되었다하며 사연을 풀이해 준다. 곧바로 그차를 몰고 초령목으로 갔었다. 웅장했던 몸집은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린 기둥으로 남아 있었다.

신화처럼 신기한 존재를 자랑하면서 푸르다 못해 검게된 흑산도의 진한 바닷물을 바라보고 대해(大海)의 공기를 호연하게 호흡하면서 장구한 삶의 역사를 바닷바람에 흘려 보냈던 지난날의 위엄과 권위는 썩어가고 있었다. 부후상태로 된 권위와 인기보다는 살아있는 잠풀의 신세가 오히려

▼초령목 유묘, 흑산도. 1994. 12. 28.





▲목련의 종자실(種絲), 수원 호매실 리. 1993. 10. 10.

부럽다.

이제 초령목은 죽었다. 나는 그 생애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살점(木片)을 뽑아 내었다. 어떻게 살아 온 지를 알고 싶었다. 살점을 오려낼 때 그 고통에 대한 나무의 놀람이 없었던 것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여기에 기적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이 나무 주변에 어린 초령목이 30여그루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했다. 백년 아마 그보다도 더 긴 생애동안 한그루의 묘목도 만들어 내지 못한 이 나무가 어떻게해서 이만큼의 자손을 퍼뜨려 낼 수 있었다는 말인가.

이곳 면장의 이야기처럼 종자를 얻어 그토록 묘목을 얻고져 힘써 보았는데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어떤 영문으로 3~4

년 전부터 생명력 있는 종자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초령목이 자손을 남기 고자 기적을 행하였다고 볼 것인가.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린초령목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집했다.

영웅같았던 초령목은 이제 죽은 몸이었다. 그를 슬프게 여긴다.

4. 種絲

목련 속의 붉은 종자는 쿵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땅으로 떨어질 때에는 명주실과 같은 탄력성있는 1cm쯤되는 실에 매달려 대롱대롱 흔들리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흔들리다가 또 흔들리다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지만 어머니몸을 떠나기 싫어하는 목련의 씨앗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이의 지극한 사랑 아니면 아이에 대한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종자와 집과(集果)의 몸을 연결하는 이 명주실을 종사(種絲)라 말한다. 아버지와 자식간의 사랑이 목련씨앗만큼이나 되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던 말인가! 목련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진다.

이러한 현상을 생물학적인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늘어질대로 늘어진 종사에서 흔들리던 종자가 가장 강한 바람으로 전달되는 그순간 이 종자는 그만큼 더 먼곳까지 떨어져 나갈수 있다.

모든 생물은 그 자손으로 이 지구를 덮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하고 있다. 빨리 지구를 덮자면 빠른 전파(傳播)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목련에 종사가 발달하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나는 그와같이 해석해 보고 싶다.

종사에 닮은 것으로 연뿌리의 실이 있다. 연뿌리는 연근(蓮根)이라해서 식품의 하나이다. 연뿌리를 뜻하는 한자에 연뿌리우(藕)가 있다. 그래서 연뿌리속의 실을 우사(藕絲)로 말한다. 연뿌리를 자르면 두토막사이에 가는 실들이 이어져 있다. 이것이 우사이다. 상당히 멀리 떼어 놓아도 그 실은 점질성이고 힘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연뿌리실은 옛날사람에게 부부간의 애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쳤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몸부림은 남녀간 특히 부부간의 애정에 연결된다. 중국 당나라때 맹교(孟郊)의 시에 다음이 있다.

첩심우중사(妾心藕中絲)
수단유견련(雖斷猶牽連)

저(妾, 남편에 대해서 자기를 말함)의 마음은 연뿌리속의 실이 올시다. 비록 연뿌리를 자른다해도 그 실은 여전히 이어져 있을 겁니다.

목련종자가 종자실로 대롱대롱 매여 달려있는 그모습을 잘 관찰

한다면 사소한 구석에서 광활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찾아 낼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지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연뿌리실은 종종 시에 나타난다. 왕발(王勃)의 채련곡(採蓮曲, 연밥을 따는 노래)은 길지만 중간 중간이라도 감상할만 하다.

채련귀(採蓮歸)
연밥을 따서 돌아온다.

상사고(想思苦)
사랑의 고민이여!
가기불가주(佳期不可駐)
사랑의 만남은 길 수 없고
새외정부유미환
(塞外征夫猶未還)

싸움터의 그대는 돌아오지
않고
강남채련금이모
(江南採蓮今已暮)
강남의 연따기 해는 저물고
가인부재자(佳人不在茲)
그대는 이곳에 없고
창망별리시(悵望別離時)
이별의 한스러움이 살아나서
절우애련사(折藕愛連絲)
연뿌리를 꺾어서 연실을
사랑해본다.
채련가유절(採蓮歌有節)
연밥따는 노래에 가락이
있고
채련야미휴(採蓮夜未歇)

밤이라도 좋다 연밥을 따자.

이 채련귀의 노래는 중간 중간을 더러 빼버리고 필자 나름대로 이어 붙인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싸움터에 보내고 그리워하는 상사(相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연실(蓮絲)의 상징이 그리워 밤인데도 연을 따는 어느 젊은 아낙네의 상황을 그려 본다. 연뿌리실은 이 노래의 핵심을 만들어 내는데 녀석했다.

목련 종자의 실도 서로 떨어지기 싫은 애모의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집착은 고대식물들의 생리인가. 진화된 지금의 식물에서 이러한 것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애정도 지금에 와서는 강렬하지 못하다는 뜻인가.

5. 목련낙화(木蓮落花)

목련꽃은 봄을 알리는 빠른꽃 중의 하나이다. 이제 방금 겨울이 간 것을 알고 창문을 열면 모조리 하늘을 쳐다보는 목련꽃 봉우리가 시계(視界)에 들어 온다. 며칠 뒤이면 피겠고나하면 그날 오후에 반쯤은 깨어져 버린다. 초봄의 따뜻한 온도는 목련꽃으로 하여금 잠자게 하지 않는다. 따뜻한 온도에 반응없이 그대로 참아 있을 수는 없다. 피어 버린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우리나라의 기온패턴으로 소위 밤낮간의 온도교차가 심해서 목련꽃은 명들게 된다. 목련꽃은 온도에 무



▲백목련의 꽃봉우리, 목필(木筆), 남원에서. 1988. 4. 10.

척 예민하다.

낮에 피게해 놓고 밤에 상처를 주는 심술궂은 온도의 장난에 목련꽃은 견디다 못해 파사락(婆娑落) 파사락 떨어져 간다. 아니꼬운 온도의 변덕에 목련꽃은 시들었고 우리는 이것을 안타까워 했다.

그 아름다움이 더 오래갈 수 있었더라면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아니 아름다움은 길게 뻗칠 것이 아니라 오리혀 잠시로 족할지도 모른다. 목련꽃이 길게 피어 있다면 오히려 인간은 이 꽃에 싫증을 느낄지도 모른다. 오히려 아깝고나 하는 때에 떨어져 내리는 목련꽃이다.

목련이 처음 이세상에 나타났을 때에는 낮밤의 온도가 비슷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대로 좋았다. 유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상의 기온의 기록에는 큰 변화가 왔다. 이러한 온도변화는 고대식물의 하나인 목련에게는 즐거운 것이 못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남쪽 따뜻한 곳을 고향으로 하는 목련이 추운 우리나라로 옮겨온 것도 문제는 될 수 있다.

피었다가 떨어지는 목련꽃에 근심섞인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 꽃잎 한조각 한조각 파사락 파사락 떨어져 내리는 봄날은 그래도 목련을 위한 계절로 볼 수 있다.

중국 당시에 신이화진행화비(辛夷花盡杏花飛)가 있다.

목련꽃이 떨어지고 난뒤에 살구나무꽃이 이어서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인데 목련은 살구꽃에 앞서 피는 생태를 지니고 있음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봄바람은 사납다. 그리고 설죽을 모른다. 고요한 봄날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꽃잎의 떨어짐을 재촉한다.

풍경화락지(風輕花落遲)

바람이 가벼워서 꽃잎 떨어짐이 더디다는 시구(詩句)가 있는데 목련꽃이 피어있다는 것은 바람 없는 화창한 날씨의 계속을 말해 준다.

다음은 필자의 졸작시다. 제목

은 목련의 낙화쯤으로 해들까.

원초의 생명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삶의 원류
팽만의 탄력은
목련꽃잎에 덮여
뚝뚝 흐르는
질지도 않고 엮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흐리지도 않은
구름보다 더 한 순수에
꽃잎은 물들었다.

천사의 찬미가
송이 송이 뽑아 올려
가다간 열리고 터지고
터지곤 파사락 떨어져
그다지 길지도 못했던
청춘의 시간에
지질시대의 생리가
홍건히 울고 말았다.
작열하던 태양의 열기도
이젠 믿을 수 없어
소멸의 아쉬움도 잊어버린
긴 역사는 이미
출범했는가.
하지만 목련꽃은 약속대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어 이어 피어 나갈 것이다.

6. 함박꽃나무

백목련, 자목련, 목련(재래종)은 많은 꽃을 달아서 화량(花量)의 아름다움 또는 군무(群舞)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함박꽃나무는 몇몇 송이의 꽃으로 우리를 빨아 당긴다.

내가 함박꽃나무를 산에서 그



▲ 함박꽃나무 강원, 인제 관리소.
1992. 5. 19.

것도 꽃필무렵에 만난 것은 드물다. 1992년 8월 상순 소백산을 찾았을 때 진한 잎속에 숨어서 땅을 향한 함박꽃을 본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또 수년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쪽에 열목어서식지를 답사하는 도중 어느 절간부근에서 길가에 나고 있는 함박꽃나무를 본 적이 있다.

그 꽃은 원시적인 미를 지니고 있고 또 자라나고 있는 곳이 산골 구석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다. 무척 야생적이고 꾸밈이 없고 한 여름의 더위를 느낄 수 없는 산골 찬물가에 잘난다. 몇개의 꽃송이를 달고서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나무다. 말하자면 가난을 넉넉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꽃나무이다.

나는 이제 뜰이 있는 집에서 살 팔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꿈에라도 뜰이 있는 개인주택에 살아 본다면 뜰 한구석에는 함박꽃나무를 심어 두겠다.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말이 있는데 바로 함박꽃

나무가 그의 처지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 가고 있다. 불만과 부족에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함박꽃은 어떻게 내다 보고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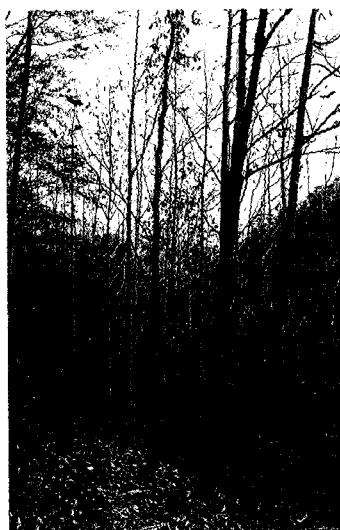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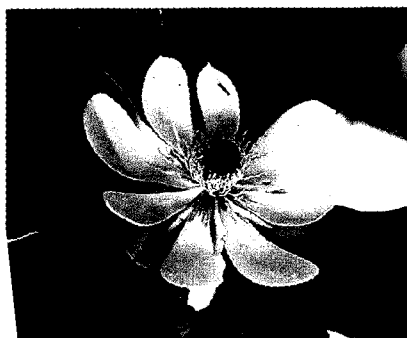
하늘의 공간이 좁다고 채워가면서 꽃을 다는 백목련이라던가 자목련을 함박꽃나무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대안정(大安定)을 그의 분수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7. 일본목련(후박나무)

일본목련은 잎이 큼직해서 잘 알아 볼 수 있다. 즐기는 끈계 서고 높게 자라는 교목이다. 지리산 삼흥소쪽 산허리에 많은 일본목련이 식재되고 있는데 사람이 뛰어나 불만하다. 나무높이 20m까지 달하는 나무로써 사람이 매우 빠르다.

꽃은 잎이 피고 난뒤 초여름에 피는데 화량이 적고 가지끝에 달린다. 꽃이 크고 꽃의 지름이 15~30cm에 이른다. 향기가 있는 것은 목련류의 일반속성으로 예외가 될 수 없다. 나무가지가 성기게 나고 수피는 회백색으로 평활

▼ 일본목련, 여의도 시범아파트. 1988. 5. 25



▲ 일본목련의 숲, 지리산 피아골. 1985. 10. 30.

한 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내에는 곳곳에 이 나무가 심어지고 있다. 나의 아파트건물 현관 옆에 큰나무가 서 있어서 사계절 이나무가 보여주는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나무를 흔히 후박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껍질의 약효가 후박나무의 그것과 비슷한데 있다. 일본원산의 목련인데 그들은 이 나무를 「호오노끼」로 부르고 있고 厚朴으로 쓰고 그와같이 발음하고 있다.

잎의 길이가 20~40cm에 달해서 그들은 음식 특히 떡이나 주먹밥을 이 나무의 잎으로 썼다. 잎의 은은한 향기가 음식안으로 젖어 들어가서 맛있는 식생활의 문화를 꾸미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잎을 박엽(朴葉)

호오바)이라해서 팔기도 한다.

목련속의 나무의 겨울눈은 열핏 붓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목련을 목필(木筆)로 부르기도 한다. 목련의 겨울눈 즉 목필은



▲ 일본목련의 꽃봉우리, 이리에서. 1989. 5. 6.

약으로 이용된다. 목련속의 나무는 주로 꽃을 감상하기 위한 조경수로 이용되지만 일본 목련의 경우는 큰나무를 얻을 수 있고 재질이 연하고 뒤틀림이 없고 치밀해서 가공하기가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데 쉽다.

기후의 변화에 의한 수축 등이 거의 없고 갈라지는 일도 없다. 그래서 목재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수피는 위장을 튼튼히 하고 담을 제거하는 효용이 있다. 일본의 나무문화와는 관련이 깊다.

일본목련도 신비스러운 나무라는 기풍을 넉넉히 풍겨 주고 있다. 붉은 종자가 실에 달려 흔들리는 것도 목련속의 공통적인 전통을 이어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으로 목련 이야기를 일단 끝내 둔다.